

## 자존감 2요인 모델에 대한 고찰

김민정<sup>†</sup>

아주대학교

자존감은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오랜 기간 연구된 주제들 중 하나이다. 연구자들은 자존감을 영역별 자존감, 자존감 수반성, 자존감 수준, 특질/상태 자존감, 외현적/암묵적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존감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하고 서로간의 관계성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2요인 모델을 소개하고 2요인 모델을 국내 연구에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과 고려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자존감 연구들을 개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자존감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각 차원들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자존감을 가치감 근거 자존감과 유능감 근거 자존감으로 구분하는 관점을 소개하고 이 모델의 관점에서 국내 연구들을 개괄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 2요인 모델, 가치감 근거 자존감, 유능감 근거 자존감

---

<sup>†</sup> 교신저자: 김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수원시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종합관 821호  
Tel: 031-219-1791, E-mail: [kimmj@ajou.ac.kr](mailto:kimmj@ajou.ac.kr)

자존감은 개인이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를 가리키는 말로, 자기가치감, 자기존중 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James(1983)는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들에서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는 비율로 자존감을 정의하였다. 자존감에 대한 James의 정의는 자존감이 성공에 의존적인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Crocker & Park, 2003). 이와 달리 Rosenberg(1965)는 자존감을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태도에 한정됨으로써 능력에 대한 평가는 배제되었다(Mruk, 2006).

한편 Branden(1969)은 자존감을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능력과 개인이 행복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능력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 내린 판단의 결과이며, 가치에 대한 태도는 스스로의 흥미와 욕구를 존중하면서 행복을 얻을 권리에 대한 판단 결과이다. 이는 자존감을 자기 능력에 대한 태도와 자기 가치에 대한 태도의 합으로 간주한다. 가치와 능력에 대한 태도를 모두 고려한 Branden의 정의는 자존감을 특정 영역에 국한된 태도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준다(Mruk, 2006).

최근 이론들은 자존감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지표 이론(Sociometer Theory)인데, 이는 자존감이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집단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는 관점이다(Leary & Downs, 1995). 개인은 일생을 통해 사회에 소속되어 있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격리될 가능성을 경고하게 된다. 자존감을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은

불안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인데, 이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삶의 무의미함이나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 인한 불안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은 특정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삶의 무의미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실존적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이때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태도는 무의미한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불안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사회적 지표 이론과 불안 관리 이론은 개인이 스스로를 긍정적인 존재로 보는 태도가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자존감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자존감이 개인을 이해하고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자존감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Brown & Marshall, 2006). 자존감 수준, 특질/상태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존감 수반성, 암묵적/외현적 자존감 등 각 개인의 자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설명하는 다양한 차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차원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중첩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ernis & Goldman, 2006).

근래에는 자존감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자존감이 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안하면서 다양한 차원들을 통합하려고 있다(Mruk, 2006; Tafarodi & Swann, 1995; Tafarodi & Ho, 2006). 본고에서는 자존감의 2 요인 모델을 소개하고 그 유용성과 제한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이 자존감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해왔는지 개괄하고 각 차원의 공헌점과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2요인 모델과 기존 자존감 차원들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2요인 모델이 개인의 복잡한 자존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험적 연구들이 사용한 도구를 중심으로 2요인이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존감의 형성과 역할이 개인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Markus, & Kitayama, 1991)에서, 서구문화에서 제안된 자존감 요인이 우리 문화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자존감 2요인 모델을 국내 연구에 적용하는 것의 유용성과 고려할 점을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존감 연구 차원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자존감을 고려할 때 사용한 관점들을 크게 근거영역 차원과 연속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존감 근거영역 차원: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영역에 개인차가 있다는 관점들

### 영역별 자존감

자존감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자기에 대한 태도(Rosenberg, 1965)라고 보았다. 이후에는 이러한 '전반적(global) 자존감'과 달리, 삶의 영역들 중 특정 영역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영역별(domain-specific) 자존감'이 있다는 제안이

이루어지면서 두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영역별 자존감은 특정 영역들(예를 들어, 외모, 학업, 사회성 등)에서의 자기 만족감을 의미하는데, 개인은 삶의 특정 영역에서 잘 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 개인의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전반적 자존감을 제안했던 Rosenberg도 계속된 이후 연구에서 영역별 자존감의 독립적인 중요성을 제안하였다(Rosenberg, et al., 1995).

자존감의 근거 영역들은 측정 대상이나 측정 도구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Coopersmith(1967)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척도에서 동료관계, 부모관계, 학업, 개인적 흥미의 네 영역을 제시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척도에서는 삶에 대한 관점, 가족 관계, 인내와 혼란, 사회성의 네 영역이 제시되었다(Ahmed, Balliant, & Swindle, 1985). 또한 일반 인지 능력, 운동 능력, 직업 능력, 동료 선호성, 친밀한 우정, 이성적 매력, 외모, 행동적 수행(Harter, 1988)의 여덟 영역이 제안되는 등, 연구자별로 근거 영역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Harter, Whitesell, 그리고 Junkin(1998)는 근거영역별 자존감과 전반적 자존감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학생과 학습장애아, 행동장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영역에서의 능력지수가 전반적 자존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었고( $r = .66, .68, .71$ , 차례대로),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영역에서의 능력지수와 전반적 자존감의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r = .34, .32, .25$ , 차례대로). 이러한 결과는 개인은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영역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전반적 자존감을 고양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

다(Harter, Whitesell, & Junkin, 1998).

Harter의 연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들에서의 성공경험이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James(1983)의 제안과 일치한다. 또한 이들은 전반적 자존감 수준이 단순히 영역별 자존감 수준들의 합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보다는 전반적 자존감 수준은 삶의 영역들이 개인의 자존감에 얼마나 중요한지와 그 영역에서 개인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의 상호작용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의 자존감을 개별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려하는 접근은 복잡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Rosenberg, et al., 1995). 그러나 자존감의 근거 영역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자기(self)의 영역 중 일부만을 반영하게 될 우려가 있다(Blascovich & Tomaka, 1991). 따라서 특정 영역에 대한 자기 존중감을 고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했을 때에는 '자기에 대한 태도라는 정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 자존감 수반성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영역들이 나눌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Crocker 등(2003)은 자존감 수반성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자존감 수반성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개인의 자존감은 특정 영역에 수반되어 있으며, 자존감이 수반된 영역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가 자기가치감을 결정한다. 즉, 어떤 영역에 자존감이 수반되었다는 의미는 개인이 해당 영역에서 실패 또는 성공을 경험할 때 자존감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은 특정 영역에서의 실패가 자기(self)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 즉 자존감이 특정 영역에 수반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Niiya & Crocker, 2008; Niiya, Brook, & Crocker, 2010).

Crocker와 Park(2003)은 높은 자존감을 위해 두 가지 조건(자존감 수반성과 그 수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높은 자존감을 갖기 위해 특정 영역에 자존감이 수반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영역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야 한다. 백인이 우세한 대학 내의 아프리카계 학생들과 유럽계 학생들에 대한 연구(Crocker & Wolfe, 2001)에서 아프리카계 학생들의 자존감이 타인의 인정, 학업, 외모에 수반된 경우에 유럽계 학생들에 비하여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와 달리 자존감이 가족이나 종교, 도덕성에 수반된 경우에는 유럽계 학생들과의 자존감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존감 수반성과 환경이 자존감 수준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존감 수반성(개인의 자존감이 어느 영역들에 수반되어 있는지)으로 개인이 어떤 영역에서의 성공을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 수반성만으로는 현재의 자존감 양상을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자존감 수준이나 변화는 구체적인 생활 사건과 자존감 수반성의 결합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데(Crocker & Park, 2003) 현재 개인의 각 영역에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정보 없이는 자존감 수준 및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존감 수반성은 개인의 자존감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 틀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 현재의 자존감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 연속성 차원: 자존감을 양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관점

### 자존감 수준

심리학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측면은 개인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즉 수준에 대한 고려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적 연구들은 높은 자존감이 심리적 적응의 주요한 지표라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자존감은 높은 우울(Beck, et al., 2001; O'Brien, et al., 2006), 불안(Leary, 1983), 낮은 삶의 만족도(DeNeve & Cooper, 1998)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었다. 또한 높은 자존감은 높은 삶의 만족도(Diener & Diener, 1995)와 학업 수행(O'Brien, et al., 2006) 등의 적응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높은 자존감이 적응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지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Baumeister 등(2003)은 높은 자존감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Baumeister, Heatherton, 그리고 Tice(1993)는 자존감이 높은 개인은 이기적인 환상을 발달시켜 자존감이 낮은 개인에 비해 수행을 덜 잘할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ernis와 Grannemann, Barclay(1989)는 자존감이 높고 불안정한 개인은 자존감이 낮은 개인에 비해 화를 더 많이 내고 공격적임을 보고하면서 자존감 수준과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높은 자존감 수준을 무조건적으로 지향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불안관리이론이나 사회적지표이론 등, 자존

감에 대한 현대 이론들은 개인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함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개인을 실존적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격리되지 않도록 돕기도 한다. 개념적으로, 높은 자존감은 그 자체로 자기(self)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전술한 연구에서처럼 이기적인 환상을 발달시키거나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존감이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연구들이 고려한 자존감이 의식적이고 방어 가능한 특성(후에 개관할 외현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자존감을 주제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의 대다수는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검사들을 사용하였다(Baumeister, et al., 2003). 다소 오래된 보고이지만, 연간 발표된 자존감 관련 논문들에서 전체의 25%가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S)를 사용하였으며 18%가 Coopersmith의 자존감 검사(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CSI)를 사용하여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lascovich & Tomaka, 1991). 이는 기존 자존감 연구들이 자존감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서 의식적인 차원에서 보고가 가능한 자존감만을 주로 측정하였으며, 결국 외현적 자존감에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Blascovich와 Tomaka(1991)는 자존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자기보고식 검사로 자존감을 측정하는 방법을 재고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자존감 수준 차원은 후에 개관할 특질/상태

자존감, 그리고 암묵적/외현적 자존감 등 자존감의 대부분 영역에 걸쳐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자존감 수준이 개인의 자존감을 이해하는 주요한 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개인에게서 단일한 자존감 수준 측정치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자존감 수준만을 고려하는 접근은 자존감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 특질 자존감 / 상태 자존감

자존감은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특질 자존감과 상태 자존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특질 자존감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자존감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일반적으로 특질 자존감은 일생을 통째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삶에서의 여러 경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조금씩 수정되고 변화하기도 한다는 견해(Mruk, 2006)도 있지만, 변화의 폭이 크지 않거나 변화를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상태 자존감은 매 순간에 경험하는 자존감을 의미한다(Rosenberg, 1979). 이는 특질 자존감과 달리 삶에서의 경험에 따라 단시간에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태 자존감 연구(Heatherton & Polivy, 1991)는 실패 경험이 자존감과 관련된 정서(자긍심, 자신감, 수치심 등)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이를 통해 상태 자존감이 정서와 유사한 정도의 변화폭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James(1983)는 개인은 자기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 어떤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수준(특질 자존감)이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자기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는 기복(상태 자존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osenberg(1979)도 오랜 시간

이 지나야 점진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기저선’ 자존감과 매 순간 빠르게 변화하는 ‘지표’ 자존감을 구분하여 자존감은 특질 자존감과 상태 자존감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상태 자존감에 대한 오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할 도구가 적절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최근에서야 도구의 타당화가 이루어져(박홍성, 이정미, 2015) 상태 자존감을 고려한 경험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 현재 상태 자존감에 대한 관심은 상태 자존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었다(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 상태 자존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Rosenberg(1979)가 자기 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 Scale; SSS)를 제안하였고 이는 단일 측정으로 자존감 안정성을 잴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있다. 그러나 자기 보고식 검사로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는 것에는 정확성에서 제한점이 있다(Wright, 2001). 이에 따라 Kernis와 동료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자기 가치감의 변화폭’을 자존감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 Kernis, Grannemann, & Barclay, 1992; Kernis & Goldman, 2003). 매 순간의 자존감의 기복이 얼마나 큰지 측정할 방법이 새롭게 제안됨으로써 상태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자존감 안정성이 상태 자존감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반영한다면, 자존감 수반성은 상태 자존감이 ‘언제’ 변화하는지를 설명한다. Crocker와 Park(2003)은 개인이 자기 가치감을 갖는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성공 또는 실패를 경험할 때 개인의 상태 자존감은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즉, 상태 자존감은 1) 개인이 경험하는 영역이 자존감이 수반된 영역이고 2) 해당 영역에서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 암묵적 자존감 / 외현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과 외현적 자존감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의식적으로 자각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외현적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각이 가능한 긍정적 태도이며 암묵적 자존감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태도이다.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교적 최근 모델(Wilson, Lindsey, & Schooler, 2000)은 개인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의 다른 태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자기에 대한 태도인 암묵적 자존감과 외현적 자존감 역시 독립적으로 작용함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개인에게 “자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니까?”라고 물었을 때 의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응답하는 수준은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수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Hetts, Sakuma, & Pelham, 1999)는 외현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상관성이 낮다고 보고하며 두 자존감이 독립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외현적/암묵적 자존감과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Spalding & Hardin, 1999)에서는 두 자존감이 관련되는 행동들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외현적/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불안 지수를 자기평정과 관찰을 통해 측정하였다. 외현적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자기 평정 불안 점수가 낮았으며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관찰

자가 평정한 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암묵적 자존감과 관련된 행동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행동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자존감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관심은 기존 자존감 연구들이 고려한 자존감이 의식적 차원에서의 측정에만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자존감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도 불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정(James, 1983)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는 자존감 수준이 높은 개인들 중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한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3). 연구들(김민정, 이기학, 2014; Farnham, Greenwald, & Banaji, 1999)은 이러한 차이는 연구들이 고려한 자존감이 외현적 자존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암묵적 자존감이 외현적 자존감과 별도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들은 외현적 자존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이 가능한 외현적 자존감에 비해 무의식적 작용인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암묵적 자존감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가 사용된다(박재우, 박기환, 2014;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IAT는 개인이 무의식적 차원에서 특정 대상들을 어떻게 연합시키는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IAT를 이용한 암묵적 자존감 측정에서는 ‘자기’와 ‘긍정적 정서를 유발

하는 단어의 연합 정도를 측정하여 둘 사이의 연합 정도가 강할수록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외현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외현적 자존감, 즉 개인이 '보고한 자존감'(Demo, 1985)만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었던 자존감의 특성을 폭넓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암묵적 자존감을 고려하는 경험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암묵적 자존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들(Bosson, Swann, & Pennebaker, 2000; Falk & Heine, 2015; Falk, Heine, Takemura, Zhang, & Hsu, 2015; Krizan, 2008)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IAT나 이름철자검사(Name Letter Test; NLT)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Baumeister와 Blanton, Swann(2011)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IAT는 개인의 정서상태를, NLT는 자기애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암묵적 자존감의 존재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암묵적 자존감을 고려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의 해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방어적 자존감

자존감 연구에 있어서 방어성은 Horney (1937)가 진실한(true) 자존감과 방어적(defensive) 자존감을 구분하여 제안한 이래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진실한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순수하게 수용하는 변하지 않는 긍정적 자기감을 의미한다(Rosenberg, 1979). 이에 반해 방어적 자존감은 내면에 부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갖고 있으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아 자신

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자존감과 방어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자존감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진정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중의 일부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방어적 자존감을 제시하였다(Cohen, 1959).

방어적 자존감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Schneider와 Turkat(1975)은 진정한 자존감은 자존감 수준이 높으면서 방어성이 낮은 반면 방어적 자존감은 자존감 수준과 방어성이 함께 높다고 제안하였다. 이때 Schneider와 Turkat이 제안한 방어성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Raskin, Novacek, Hogan(1991)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자기과대화가 방어적 자존감의 요인이라고 제안하면서 방어적 자존감을 가진 개인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경우와 자기과대화가 높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방어적 자존감을 진정한 자존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던 과거의 입장(Horney, 1937; Cohen, 1959; Schneider & Turkat, 1975)과 달리, 자존감에 대한 비교적 근래의 연구들(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 Baumeister, Dale, & Sommer, 1998; Cooper, 1998)은 자존감에 있어서 방어적 측면은 대부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존감의 역할에 대한 불안 관리 이론은 자존감 자체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 즉,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함으로써 삶의 무의미함과 유한성이라는

불안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결국 자존감은 개인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Rosenberg(1979)는 개인은 생득적으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여기려는 자기-고양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결국, 개인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태도를 갖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Schneider와 Turkat(1975) 역시 개인이 자존감이 높을 때 이를 방어성으로 불지 항상성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불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존감의 방어성이 일부 개인의 특징이 아니라 보편적 특징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이제 논의는 방어적 자존감이 진실되지 못하거나 거짓된 자존감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불안정하고(Kernis & Waschull, 1995) 보호받아야 할(Deci & Ryan, 1995) 자존감이라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즉, 방어적 자존감이 병리적인 특성이라기보다 개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들 중 하나라면, 방어적인 특성의 자존감을 가진 개인들이 특정 소수에 해당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존감 안정성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자존감과 대비되는 기복이 있는 자존감(James, 1983), 오랜 시간 변화하지 않는 '기저선' 자존감과 대비되는 '지표' 자존감(Rosenberg, 1986)은 상태 자존감을 의미한다. 개인의 상태 자존감의 변화폭을 고려한 연구들은 자존감 안정성을 주요 변인으로 한다. Kernis와 동료들(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 Kernis, Grannemann, & Barclay, 1992; Kernis, & Goldman, 2003)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자기 가치감의 변화폭 정도'를 자존감 불안정성으로 정의하면서 자존감 안정성

차원의 일련의 연구들을 보고하였다.

자존감 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자존감 수준뿐만 아니라 자존감 안정성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하고 있다. 즉 자존감이 낮은 개인의 경우에 자존감이 불안정하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애착 양식을 갖거나(Waschull, Greenier, & Kernis, 1993), 높은 신경증 경향을 보이는(Berry, Kernis, & Cornell, 1993)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개인도 자존감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내집단이 비판받을 때 외집단을 무시하는(Crocker, et al., 1987)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불안정한 자존감은 방어적 자존감의 증거로 제시된다(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 어떤 개인이 방어적이지 않으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졌다면 특정 상황에서 실패하더라도 자존감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환언하면 방어적이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개인은 자존감의 변화 폭이 클 것이며 자존감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들(Crocker, et al., 1987; Greenier, Kernis, & Waschull, 1995; Schröder-Abé, Rudolph, & Schro, 2007)은 높고 불안정한 특성을 가진 자존감을 방어적 자존감으로 제안한다.

자존감 안정성 연구는 주로 자존감 수준과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높은 자존감 집단으로 분류되던 개인들이 전술한 연구들에서처럼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 집단과 높고 불안정한 자존감 집단으로 세분화되어 고려되고 있다.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접근은 자존감과 인간행동의 관련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 자존감의 2요인으로 무엇이 제안되는가?

지금까지 자존감은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자존감의 구조와 특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자존감이 크게 두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한다(Mruk, 2006; Tafarodi & Ho, 2006). Mruk(2006)은 두 요인으로 가치감(worthiness)과 능력(competence)을 제안하였다. 가치감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경험이며, 능력은 자신이 삶의 다양한 과제들을 해낼 수 있다는 지각이라고 설명된다. Tafarodi와 Ho(2006)는 자존감의 두 요인이 도덕적 가치(moral value)와 효능감(agency)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Tafarodi와 Swann(1995)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효능감이 전반적 자존감의 차원됨을 보고하였다. 결국 도덕적 가치는 자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감이며 자기 선호(self-liking; Tafarodi & Swann, 1995)로 설명되고, 효능감은 유능감(self-competence; Tafarodi & Swann, 1995)으로 설명된다.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들이 제안한 2요인을 가치감과 유능감<sup>1)</sup>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1) 본고에서는 Mruk(2006)과 Tafarodi와 Ho(2006)의 용어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즉, 가치감(worthiness), 도덕적 가치(moral value), 자기선호(self-liking) 등의 용어들 중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수용되는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용어로 가치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능력(competence), 효능감(agency), 유능감(self-competence) 등의 용어들 중에서, '현실에서의 다양한 과제를 스스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용어로 유능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치감 요인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수용되는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기를 타인으로부터 사랑 받고 행복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느끼는 정도로 알 수 있다. 이는 가치감(worthiness; Mruk, 2006) 또는 자신의 도덕적 가치(moral value; Tafarodi & Ho, 2006)에 해당하는 요인이며,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나(Tafarodi & Swann, 1995; Tafarodi & Ho, 2006)를 의미한다.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경험은 자신에 대해 기분 좋은 느낌을 갖게 하여 자존감을 형성한다(Mruk, 2006). 따라서 삶의 과제에서의 개개의 성공/실패라는 증거에 바탕을 두었다기 보다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에게 수용되는 정서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이 타인의 수용에 근거한 가치감이라는 관점은 자신이 사회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인식이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사회계측이론(sociometer theory)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Mruk(2006)은 자존감에 대한 기존 이론들 중에서 가치영역 자존감은 자존감을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태도'라고 본 Rosenberg(1965)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제안한다.

유능감 요인은 현실에서의 다양한 과제를 스스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이며, 개인이 자기를 삶의 다양한 과제들을 만족스럽게 성취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로 알 수 있다. 능력(competence; Mruk, 2006) 또는 자신의 효능감(agency; Tafarodi & Ho, 2006)에 해당하는 요인이며,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나

(Tafarodi & Swann, 1995; Tafarodi & Ho, 2006)를 의미한다.

유능감 요인은 자신이 학업, 기술, 대인관계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때 높은 수준을 갖게 된다. 즉,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들에서 성공을 하는 비율이 높을 때 유능감 요인이 높게 나타난다. 유능감 요인이 자존감을 구성한다는 관점은 성공에 따르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자존감이라고 본 James(1983)의 견해와 일치한다(Mruk, 2006).

결국 2요인 모델에서 자존감의 요인을 가치감과 유능감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존감에 대한 Branden(1969)의 통합적 견해와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 Mruk은 개인에 따라서는 2요인 모두를 갖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고 2요인 모두를 갖지 못하는 개인도 있다고 제안한다. 한편, 문헌을 근거로 Rosenberg(1965)의 관점이 자존감의 가치감 요인을 대변한다고 본 Mruk과 달리, Tafarodi와 Ho(2006)는 Rosenberg의 자존감 검사 역시 자존감을 단일 요인이 아닌 2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다”로 대표되는 문항들은 자신의 가치(moral value)에 대한 문항들이며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로 대표되는 문항들은 자신의 효능감(agency)에 대한 문항들이라고 보았다. 결국, 전반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SES 역시 자존감을 가치감과 유능감이라는 2요인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 자존감의 근거로서의 2요인

가치감과 유능감은 자존감의 2요인이면서 개인에게 있어서 자존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경험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을 유능한 존재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게 되기도 하며, 2요인이 모두 근거가 되어 자존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즉,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경험이나 삶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경험은 각각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근거가 된다. 개인의 자존감에는 근거요인이 있다는 견해는 영역별 자존감에 대한 관점(Ahmed, Balliant, & Swindle, 1985; Coopersmith, 1967; Harter, 1988; Rosenberg, et al., 1995)이나 자존감 수반성 견해(Crocker et al., 2003; Kernis & Goldman, 2006) 등과 일치하는 관점이다.

개인은 자기고양동기,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성을 갖고 이러한 동기는 기본적으로 적응적이다. ‘기본적으로 적응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고양동기로 인하여 개인이 비록 현실에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은 지각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편향성은 개인의 적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Sedikides, & Gregg, 2008).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동기는 불안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의 관점에서 적응적인데,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삶의 유한성과 무의미함에 대한 자각으로 인한 불안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유한하고 무의미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불안을 극복하는 작용을 한다. 이처럼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경험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으며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다. Hart와 Atkins, Tursi(2006)는 자존감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최근 연구들을 개괄하면서, 자존감이 자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며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합의된 견해라고 보고하였다. 즉, 최근 연구들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자기평가나 사회적 맥락의 범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만, 자존감을 사회적 승인과 자기평가의 결과물로 보는 오랜 관점은 여전히 자존감을 이해하는 큰 틀로써 유효하다(Hart, Atkins, & Tursi, 2006). 이는 사회적 지지와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지각이 자존감의 결정요인으로 포함된다는 국내 연구(김순혜, 2010)와 일치한다. 즉, 사회적 승인과 자기평가가 자존감 형성의 토대가 되는데 각각은 가치감과 유능감을 경험하게 한다.

결국, 개인의 가치감과 유능감은 자존감을 구성하는 두 요인이며, 동시에 자존감을 경험하는데 가용한 두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자존감의 근거 영역으로 다양한 영역들이 제안되고 있다(Ahmed, Balliant, & Swindle, 1985; Coopersmith, 1967; Crocker et al., 2003; Harter, 1988; Kernis & Goldman, 2006; Rosenberg, et al., 1995). 그러나 자존감 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했을 때에는 자기에 대한 태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제안(Blascovich & Tomaka, 1991)을 고려할 때 자존감의 근거 영역을 가치감과 유능감이라는 두 영역으로 간략화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2요인 모델과 자존감 차원들의 관계

자존감을 가치감 근거요인과 유능감 근거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고려한다면, 2요인들의 조합으로 자존감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한 두 근거 요인들의 조합으로 개인을 분류하면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각 유형들은 다양한 차원의 자존감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치감 영역에 근거한 자존감과 유능감 영역에 근거한 자존감이 모두 높은 개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각하면서 동시에 유능감도 경험한다. 이들은 자존감을 경험할 근거를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자존감을 경험할 충분한 근거들을 갖는다(김순혜, 2010; Hart, Atkins, & Tursi, 2006). 따라서 다양한 영역별 자존감과 전반적인 특질 자존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Mruk(2006)은 가치감과 유능감이 모두 높은 경우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두 영역 모두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개인은 두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상태이므로, 어느 영역에 수반된 가치감을 가지고 있든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Crocker & Park, 2003; Crocker & Wolfe, 2001; Niiya & Crocker, 2008; Niiya, Brook, & Crocker, 2010).

이에 반해 능력 영역과 가치감 영역 모두에서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개인은 대체적으로 자기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경험이 부족하여 가치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활에서의 성취도 빈약하여 유능감을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이로 인해 자존감을 가질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낮은 사회적 지지가 낮

은 자존감을 설명한다는 꾸준한 보고들(예, 유양경 등, 2004)이나 실험상황에서의 실패경험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연구 결과(한민지, 장문선, 2013)를 보면, 사회적 맥락이나 자신의 능력에서 자존감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을 낮추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치감과 유능감 모두에서 자존감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 영역별 자존감이 낮고(Ahmed, Balliant, & Swindle, 1985; Coopersmith, 1967; Harter, 1988; Rosenberg, et al., 1995), 두 영역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므로, 어느 영역에 수반된 가치감을 가지고 있든지 낮은 특질 자존감을 가질 것이다(Crocker & Park, 2003; Crocker & Wolfe, 2001; Niiya & Crocker, 2008; Niiya, Brook, & Crocker, 2010). 또한 어느 영역에 근거해서도 자존감을 경험하지 못하여, 자존감이 자기 방어적인 역할(Solomon, Greenberg, & Pyszczynsk, 1991; Baumeister, Dale, & Sommer, 1998; Cooper, 1998)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치감이나 유능감 중 특정 영역에만 근거한 자존감을 가진 개인은 다른 영역에서의 결핍을 인식하여 방어적인 자존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Ryan & Brown, 2006). Crocker와 Park(2003)은 자존감에 중요한 영역(즉, 자존감이 수반된 영역)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은 그 영역의 과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는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언급하였다. Mruk(2006)은 가치감과 유능감 중 한 요인만을 가진 개인을 방어적 자존감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존감이 방어적일수록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Kernis & Waschull, 1995)는 점에서, 가치감이나 유능감 중 한 영역에 근거한 자존감을 가진 개인은 자존감의 불안정성이 높을 것

으로 사료된다.

자존감이 유능감을 근거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가치감 영역의 근거는 빈약한 개인은 자신의 성공적 수행을 근거로 하여 자존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들은 성취와 관련된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을 가질 것이며 성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Crocker, Brook, Niiya, & Billacorta, 2006). 이들에게 자신의 자존감이 수반된 영역에서의 성공은 자존감 유지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며, 따라서 만일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취를 이룬다면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유지하겠지만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존감이 크게 낮아지는 불안정성을 보일 것이다. 경험적 연구(Paradise & Kernis, 1999; Kernis & Goldman, 2006에서 재인용)는 특정 영역에 수반된 자존감은 개별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불안정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가치감을 근거로 한 자존감이 높은 반면 유능감을 근거로 한 자존감이 빈약한 경우라면, 타인의 인정에 수반된 자존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보다는 타인의 인정을 얻을 수 있는 태도를 보이기 쉽다. 이들 역시 자존감이 방어적인 특징을 갖고(Baumeister, Dale, & Sommer, 1998; Cooper, 1998; Ryan & Brown, 2006) 특질 자존감은 높을 수 있으나(Mruk, 2006), 타인의 긍정적 승인에 수반된 자존감(Crocker & Park, 2003)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감 근거 자존감과 유능감 근거 자존감의 조합으로 자존감에 있어서 개인차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 2요인 모델을 기초로 2x2의 구조로 군집을 분류한다면, 높은 가치감/높은 능력 집단과 낮은 가치감/낮은 능

력 집단에 다수 분포하고, 높은 가치감/낮은 능력 집단과 낮은 가치감/높은 능력 집단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치감과 유능감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론적, 경험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Branden, 1969;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유형의 분포에 대한 예상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론적으로 제안된 네 집단이 자연발생적으로는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의 자존감 안정성, 수반성, 방어성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 국내 경험적 연구에서 2요인을 어떻게 다루는가?)

경험적 연구에서 변인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살펴보면 각 연구가 관심 변인을 어떤 개념으로 가정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자존감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들은 90% 이상이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RSES)를 사용하였는데(박홍석, 이정미, 2015), 이들은 주로 자존감을 단일차원으로 사용하였다(예, 유양경 등, 2004). 앞서 언급한대로 RSES는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높게 평

가하는지의 2요인으로 구분하여 문항이 구성되어 있지만(Tafarodi & Ho, 2006), 현실적으로 단일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감과 유능감이라는 2요인을 혼합하여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RSES를 사용한 연구들은 자존감을 두 근거요인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존감을 측정하는 국내 연구들은 대표적으로 Coopersmith 자존감 검사(Coopersmith, 1967; 신철, 1997), Harter 자기각 프로파일검사 - 지각된 역량검사(Harter, 1982, 이은혜 등, 1992), Marsh 자기기술문지(Marsh, 1986; 김희화, 김경연, 1996), 한국형 자존감척도(차경호 등, 2006)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sup>3)</sup>. 이들 도구는 생활상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들 중 Harter의 척도는 여러 영역에 대해 지각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학업, 사회, 운동, 신체 영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문항은 능력에 근거한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문항 예. “공부를 잘 한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다”). 다만 행동 영역의 문항들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감을 측정하고 있으며(문항 예.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는 능력보다는 가치감을 근거로 한 자존감이 측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Harter의 척도에서 ‘전반적 자기가치’ 영역은 가치감을 근거로

2)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측정 도구가 가치감과 유능감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지를 실제 문항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도구들이 가치감과 유능감 차원을 고려하여 제작되지는 않았으므로, 각 도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실제로 그 도구로 측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 각 도구들은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도구들을 개발하기 위해 자존감의 개념을 어떻게 가정했는지는 대상에 따라 상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들이 자존감의 개념을 어떻게 가정하고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도구가 사용되는 대상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았다.

한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문항 예. “한 인간으로서 내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Coopersmith 자존감 검사는 각 영역에서의 주관적 평가 또는 만족감 정도를 측정한다. Coopersmith의 척도는 학교, 사회, 가정이라는 생활영역에 따라 자존감을 구분하였는데, 한 영역(예컨대, ‘사회적 자존감’)에 있어서도 자기 능력(문항 예.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다”)에 대한 평가와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가치감(문항 예.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이 함께 측정된다. 즉, 이러한 문항들에는 가치감과 유능감에 대한 평정이 혼재되어 있다. Harter의 척도에서의 ‘전반적 자기가치’ 영역과 달리 Coopersmith의 ‘총체적 자존감’은 자신의 효능감 및 능력에 대한 태도(문항 예.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와 자기 가치감(문항 예.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Marsh 자기기술문지는 학업, 친구, 가정, 신체외모, 성격, 신체능력, 교사 영역에 대해 자기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만족감을 동시에 측정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문항 예. “부모님이 나를 믿으셔서 기쁘다”, “나는 고집이 세서 걱정이다”). 이 척도의 문항들 역시 가치감과 유능감에 대한 평정이 구분되지 않는다.

한국형 자존감척도는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부모에 의한 인정, 국가자부심, 사회로부터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기, 신체적 매력-외모, 자녀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취, 경제력, 사회봉사 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만족감을 측정한다(문항 예. “주위에서 우리 집안을 부러워한다”, “남들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척도는 대부

분의 영역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근거로 하는 자존감과 관련되는데, 이는 상호의존적인 한국문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측된다(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경제력과 자신의 성취 영역에서는 개인적 능력에 근거한 자존감이 측정되기도 하지만, 신체적 매력-외모 영역은 역시 자신의 능력보다는 이로 인한 타인의 인정에 집중하는 등, 한국형 자존감척도는 사회적 수용에 의한 가치감 경험이 주로 측정될 가능성이 보인다.

앞선 검사들과 달리,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는 단순히 개인이 어느 영역에서 자존감이 높은지를 넘어서 개인의 자존감의 근거영역을 반영한 검사이다. 사회적/객관적 능력,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 영역에 대해 자신의 자존감에 각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만족 정도를 평정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자존감이 특정 영역에 근거하여 평가됨을 인지하고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자존감이 일정한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자존감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는 관점들(Ahmed, Balliant, & Swindle, 1985; Coopersmith, 1967; Crocker et al., 2003; Harter, 1988; Kernis & Goldman, 2006; Rosenberg, et al., 1995)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내용 측면에서, 하위요인들 중 사회적/객관적 능력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15문항은 능력에 근거한 자존감을, 긍정적 성품, 대인관계, 가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14문항은 가치감에 근거한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자존감을 가치감 근거 자존감과 유능감 근거 자존감의 조합으로 보는 관점을 소개하였다. 자존감을 단일 요인으로 간주할 때와 달리 자존감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Mruk, 2006)는 점에서, 자존감을 두 근거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존감의 근거 영역을 보다 세분화한다면 보다 다양한 행동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자존감의 근거 영역이 세분화될수록 자기(self)의 영역 중 일부만을 반영하게 될 우려가 있다(Blascovich & Tomaka, 1991)는 점에서 근거영역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태도, 즉 자존감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존감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요인 모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yszczynski 등(2004)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이 갖춘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지각은 유능성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능감이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Brown과 Marshall(2001)은 생애 초기 관계경험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어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 즉 가치감이 자존감의 근거가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연구(박승진, 최혜라, 이훈진, 2011)에서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관계지향적 우울

집단에 비해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성취지향적 성격은 성취를 통해 자기가치감을 형성하며 관계지향적 성격은 타인과의 친밀감, 수용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한다(Beck, 1987)는 점에서 각각은 유능감 근거 자존감과 가치감 근거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유능감 근거 자존감만을 가진 우울한 개인은 암묵적 자존감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낮은 암묵적 자존감이 초기 양육의 질이 더 나쁘고 대인관계 표상이 더 나쁜 것과 관련된다는 점(Koole & Pelham, 2002)에서, 유능감 근거 자존감만을 가진 개인은 '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질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도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은 대인표상이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되어(윤현수, 오경자, 2004), 유능감 근거 자존감만을 가진 개인의 대인표상이 부정적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유능감과 가치감으로 구분하여 고려하고 2요인에 따른 집단의 분포 및 집단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술한 것처럼 2요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능감을 근거로 하는 집단과 가치감을 근거로 하는 집단은 지연행동, 대인표상 등의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집단이 '성취'와 '대인관계' 영역에 헌신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지, 각 영역에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자존감과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외 연구들은 가치감과 유능감을 자존감을 구성하는 2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두 요인은 전체 자존감에 대해

각각 다른 가중치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보편적으로 유능감과 가치감이라는 두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 수용 경험을 토대로 한 가치감이 자존감에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이 개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사회적 지표 이론의 관점에서는, 수용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지각하는 가치감 요인을 자존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ernis의 연구(2005)에서는 각 영역에서의 성공 및 실패와 각 영역이 자신에게 갖는 중요도가 상호작용하여 자존감을 설명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는데, 결과는 '관계'에서의 실패는 그 중요도와 관련 없이 자존감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유능감이 자존감의 구성요소일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경험, 즉 가치감이 자존감에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유능감에 비해 가치감이 자존감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기감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Markus, & Kitayama, 1991), 자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은 자존감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신이 얼마나 수용되는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가치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자존감에 대해 가치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홍기원(2008)의 연구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존감 구성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두 문화권에서 공통적인 요인들을 제외했을 때 한국 문화에서는 '타인

인정'으로 명명되는 영역들이 남았고 미국 문화에서는 '사적 권력, 방어적 자기향상'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남았다. 이는 우리 문화에서 특히 사회적 수용이 자존감에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다른 국내 연구(안신호, 박미영, 2005)에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자체보다 장단점에 대한 자기수용이 자존감의 강력한 예측지표가 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유능감에 대한 인식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인식이 자존감에 더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존감을 유능감과 가치감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고 두 요인의 조합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유능감을 자존감의 주 근거로 한 집단과 가치감을 근거로 한 집단의 전반적 자존감 수준<sup>4)</sup>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집단의 심리적 적응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문화에서 가치감 요인이 개인의 자존감에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가정이 적절하다면, 가치감을 근거로 한 집단에서 전반적인

4) 전반적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현존하는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각 도구들에서 가정한 영역들의 비중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가치감 영역에 비중을 둔 도구에서는 가치감 근거 집단의 자존감이 높게 나타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거나(이 경우, 결과는 박승진, 최혜라, 이훈진(2011)의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암묵적 자존감 측정 도구의 타당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자존감과 관련된 행동을 관찰(예컨대, 좌절에 대한 반응 관찰 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심리적 적응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2요인 모델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존감의 모든 차원들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치감과 유능감을 근거요인으로 자존감을 갖는 기제는 주로 외현적 자존감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이와 달리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2요인 모델로 설명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경험적 연구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근래에는 자기에 대한 자동적인 태도(암묵적 자존감)가 의식적 태도(외현적 자존감)와 병렬적으로 작용(Wilson, Lindsey, & Schooler, 2000)한다고 보고, 암묵적 자존감과 외현적 자존감을 함께 고려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Baumeister, Blanton, Swann, 2011; Bosson, Swann, & Pennebaker, 2000; Falk & Heine, 2015; Falk, Heine, Takemura, Zhang, & Hsu, 2015; Krizan, 2008) 암묵적 자존감 연구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이다. 또한 암묵적 자존감 측정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에서도 암묵적 자존감을 영역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2요인 모델로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암묵적 자존감에 대해서는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비롯하여 요인 구조나 특징 등에 대한 추후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가능할 때 암묵적 자존감을 2요인 모델에 포함시키고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민정, 이기학 (2014). 외현적, 암묵적 자존감과 분노 상황에 따른 공격성 차이 연구. *상담학연구*, 15(4), 1343-1363.
- 김순혜 (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인간 발달연구*, 17(4), 1-18.
- 김희화, 김경연 (1996).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4(5), 1-12.
- 박승진, 최혜라, 이훈진 (2011). 성취 지향적,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 명시적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305-323.
- 박재우, 박기환 (2014). 양극성 장애군, 주요 우울장애군 및 정상 통제군의 외현적, 암묵적 자존감 수준의 차이. *인지행동치료*, 14(2), 305-317.
- 박홍석, 이정미 (2015).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K-SSSE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33-158.
- 신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 인식과 자아 개념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8, 163-218.
-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09-140.
- 유양경, 고성희, 김귀분, 정승희 (2004).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6(1), 102-110.
- 윤현수, 오경자 (2004).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 - 성취 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 지향적 우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577-594.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71-298.
-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 (1992).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6, 175-191.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105-139.
- 한민지, 장문선 (2013).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완벽주의의 특성: 이분법적 사고, 자존감, 정서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4(2), 151-171.
- 홍기원 (2008). 대학생들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있어서 문화적, 성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37-261.
- Ahmed, S. M. S., Balliant, P. M., & Swindle, D. (1985).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1, 1235-1241.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3). When ego threats lead to self-regulation failure: Negative consequences of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41-56.
- Baumeister, R. F., Dale, K., & Sommer, K. L. (1998). Freudian defense mechanisms and empirical finding in modern social psychology: Rejection formation, projection, displacement, undoing, isolation, sublimation, and denial. *Journal of Personality*, 66, 1081-1124.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2-27.
- Beck, A. T., Brown, G. K., Steer, R. A., Kuyken, W., & Grisham, J. (2001).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eck Self-Esteem Scal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115-124.
- Berry, A. J., Kernis, M. H., & Cornell, D. P. (1993).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tlanta*, March 1993.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R.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pp. 115-160). San Diego, Academic Press.
- Bosson, J. K., Swann, W. B., & Penebaker, J. W. (2000). Stalking the perfect meas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4), 631-643.
- Brande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New York: Bantam.
- Brown, J. D., & Marshall, M. A. (2001). Self-esteem and emotion: Some thoughts about feel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575-584.
- Brown, J. D. & Marshall, A. M. (2006). The three faces of self-esteem.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pp. 5-9). New York: Psychology Press.
- Buhrmester, M. D., Blanton, H., & Swann, W. B. (2011). Implicit Self-Esteem: Nature,

- Measurement, and a New Way Forwar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2), 365-385.
- Cohen, A. R. (1959). Situational structure, self-esteem, and threat-oriented reactions to power. In Cartwright, D. (Ed), *Studies in social power* (pp. 35-5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ooper, S. H. (1998). Changing notions of defense within psychoanalytic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66, 947-964.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rocker, J., Thompson, L. L., McGraw, K. M., & Ingerman, C. (1987). Downward comparisons, prejudice, and evaluation of others: Effects of self-esteem and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07-916.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 593-623.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A.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94-908.
- Crocker, J. & Park, L. E. (2003). Seeking self-esteem: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self-worth. In M. R. Leary,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291-31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rocker, J., Brook, A. T., Niiya, Y., & Villacorta, M. (2006). The pursuit of self-esteem: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6), 1749-1771.
- Deci, E. L. & Ryan, R. M. (1995). Human Autonomy: The Basis For True Self-Esteem.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51-71). New York; Plenum Press.
- Demo, D. H. (1985).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Refining our metho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490-1502.
- DeNeve, K.,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Falk, C. F., & Heine, S. J. (2015). What Is Implicit Self-Esteem, and Does it Vary Across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9(2), 177-198.
- Falk, C. F., Heine, S. J., Takemura, K., Zhang, C. X. J., & Hsu, C. (2015). Are Implicit Self-Esteem Measures Valid for Assessing Individual and Cultur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83(1), 56-68.
- Farnham, S. D.,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9). Implicit self-esteem. In D. Abrams & M. Hogg (Ed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gnition* (pp. 230-248). Oxford, UK: Blackwell.
- Greenier, K. D., Kernis, M. H., & Waschull, S. B. (1995). Not all high (or low) self-esteem people are the same: Theory and research on stability of self-esteem.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51-71). New

- York; Plenum Press.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Hart, D., Atkins, R., & Tursi, N. (2006). Origins and developmental influences of self-esteem.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pp. 157-163). New York: Psychology Press.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8) *The Self 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ce*.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Whitesell, N. R., & Junkin, L. J. (1998).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omain-Specific and Global Self-Evaluations of Learning-Disabled, Behaviorally Disordered, and Normally Achieving Adolescen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 653-680.
- Heatherton, T. F., & Polivy, J.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e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95-910.
- Horney, K. (1937). *Th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 New York, Norton.
- James, W. (1983).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90)
- Hetts, J. J., Sakuma, M., & Pelham, B. W. (1999). Two-roads to positive regard: Implicit and explicit self-evaluation and cul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512-559.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6.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1013-1022.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92). Stability of self-esteem: assessment, correlates, and excuse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60(3), 621-644.
- Kernis, M. H. & Goldman, B. M. (2003). Stability and variability in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M. R. Leary,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291-31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ernis, M. H. & Goldman, B. M. (2006). Assessing stability of self-esteem and contingent self-esteem.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pp. 77-85). New York: Psychology Press.
- Koole, S. L. & Pelham, B. W. (2002). On the nat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case of name letter effect. In S. Spencer, S. Fein, & M. P. Zanna (Eds.), *Motivated social perception: The Ontario symposium* (Vol. 9, pp. 93-11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rizan, Z. (2008). What is implicit about implicit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doi:10.1016/j.jrp.2008.07.002
- Leary, M. R. (1983).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Social, personality and clinical perspectives*. Beverly Hills, CA: Sage.

- Leary, M. R. & Downs, D. L. (1995). Interpersonal functions of the self-esteem motive: The self-esteem system as a sociometer.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123-144). New York; Plenum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sh, H. W. (1986). Global self-esteem: Its relation to specific facet of the self-concept and their impor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24-1236.
- Mruk, C.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 (3rd ed.). New York: Springer.
- Niiya, Y., & Crocker, J. (2008). Mastery goals and contingent self-worth: A field stud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1, 135-155.
- Niiya, Y., Brook, A. T., & Crocker, J. (2010). Contingent self-worth and self-handicapping: Do contingent incremental theorists protec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9, 276-297.
- O'Brien, E. J., Baroletti, M., Leitzel, J. D., & O'Brien, J. P. (2006). Global self-esteem: Divergent and convergent validity issues.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pp. 26-38). New York: Psychology Press.
- Paradise, A. W., & Kernis, M. H. (1999). Development of the contingent self-esteem scale.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Georgia.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 435-468.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19-3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1986).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 205-246). Orlando, FL: Academic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 Ryan, R. M., & Brown, K. W. (2006) What is optimal self-esteem? The cultivation and consequences of contingent vs. true self-esteem as viewed from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pp. 125-131). New York: Psychology Press.
- Schneider, D. J. & Turkat, D. (1975). Self-presentation following success or failure: Defensive self-esteem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43(1), 127-135.
- Schröder-Abé, M., Rudolph, A., & Schro, M. (2007). High Implicit Self-Esteem is not Necessarily Advantageous: Discrepancies

-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and Their Relationship with Anger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Health.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1, 319-339.
- Sedikides, C., & Gregg, A. P. (2008). Self-Enhancement: Food for Though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2), 102-116.
- Singh, R. & Tor, X. L. (2008). The relative effects of competence and likability on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8(2), 253-255.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91-159). San Diego: Academic Press.
- Spalding, L. R. & Hardin, C. D. (1999). Unconscious unease and self-handicapping: Behavioral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Psychological Science*, 10, 535-539.
- Tafarodi, R. W. & Swann, W. B. (1995).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2), 322-342.
- Tafarodi, R. W. & Ho, C. (2006). Moral value, agency, and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pp. 110-118). New York: Psychology Press.
- Waschull, S. B., Greenier, K. D., & Kernis, M. H. (1993). Unstable self-esteem: Familial antecedents and adult relationships.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tlanta*. March 1993.
- Wilson, T. D., Lindsey, S., & Schooler, T. (2000). A model of dual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07, 101-126.
- Wright, R. (2001). Self-certainty and self-esteem. In T. J. Owens, S. Stryker, & N. Goodman (Eds.), *Extending self-esteem theory and research* (pp. 101-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차원고접수 : 2015. 09. 08.  
수정원고접수 : 2016. 08. 12.  
최종게재결정 : 2016. 09. 21.

## Two Factor Model of Self-esteem

Minjeong Kim

Ajou University

Self-esteem has been studied in psychology for many decades. Studies treated self-esteem in diverse features such as domain-specific self-esteem, contingent self-esteem, level of self-esteem, trait/state self-esteem, explicit/implicit self-esteem, self-esteem stability, and defensive self-esteem. Recent studies try to integrate the various faces of self-esteem. This study is to introduce two factor model of self-esteem and suggest what to consider when the model is applied in domestic research. To do so,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summarized and criticized diverse features of self-esteem. Then, two factor model, which suggests self-esteem consists of worthiness based self-esteem and self-competence based self-esteem, is introduced. Finally, self-esteem scales used in domestic studies are reviewed to consider how two factors are applied in domestic research.

*Key words* : self-esteem, two factor model, worthiness, self-competence